

성스러운 침묵/ 행동 안에서의 사랑

여름입니다. 낮은 길어지고, 더워지고 그리고 형제인 태양은 손짓을 합니다. 일상의 바쁨에 더해 나의 달력에는 주말이 추가적인 일과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선행사, 본당의 교제활동, 다른 주에서 방문하는 가족들, 피정, 형제회 소풍 한두개, 국가회 워크숍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대하기에도 아주 신나는 일이기도 하고, 상상하기만해도 피곤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피정이라고 말했나요? 모임의 중간에, 격해진 상태에서부터 떨어져나와 평화와 기도의 장소, 쉬식과 다과, 성스러운 침묵과 고독을 향해 바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도록 허락합니다. 이것은 바뀌고 변화하고 진정한 나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프란치스코 인들에게 고독은 세상에서 도망치거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독과 참여 사이에서 어떤 리듬같은 것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따로 내는것, 성경과 기도와 침묵안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받아들릴 수 있도록 고독하게 있을 장소는 거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특히 자연스럽게 고독한 경향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프란치스코는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설교하느라 지쳤을 때, 고요한 곳과 고독이 주는 비밀을 찾곤했습니다. (캠피언 머리, *Campion Murry, OFM, 프란치스코의 영성으로의 소개, An Introduction to Franciscan Spirituality*) 프란치스코는 휴식과 비밀스런 고독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위해서 자신을 자유롭게 놓아주기를 원했고, 군중들과 보낸 시간들로부터 틀러붙은 어떤 면지들이라도 털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누어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떤 시간은 이웃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시간은 축복받은 고독안에서 묵상을 하는데 쓰곤했습니다. (성프란치스코의 삶 *The Life of Saint Francis (FA:ED, vol. 1, p. 261)*).

기도하기 위해서 떠나가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친밀한 초대에 응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 시간의 파견 임무를 수행한 후에, 예수님께는 제자들을 피정으로 불러모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어라. “ 오고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곳으로 떠나갔습니다. (마르코 6:31-32). 군중들이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엾은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마르코 6:35-44) 이 구절의 정점은 무엇일까요? 이 풍요한 식탁으로 오라!

기도와 고독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이 경험에 의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 안에 끌어드림으로써 기도가 됩니다. 우리 삶에서 하느님을 늘어나고 “나”는 줄어들게 됩니다. 성스러운 고요함 안에서 시간을 나눔으로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과 동정심으로 섬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이것이 궁극적인 환대, 행동안에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이해로 나는 꼭차여진 내 달력을 흥분과 감사와 기쁨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나는 고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침묵과 고독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니까? 나는 침묵과 고독을 위해서 내 삶안에서 어떤 공간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니까? 나는 어디서 하느님과 만납니까?

피정하고, 생기를 되찾고 여러분들의 친구, 가족과 형제회에 돌아가십시오.

평화와 선함

국가회 영성교육부

기도할때, 그대 전부를 모아서 사랑하는 그분과 당신의 가슴의 밀실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그분과 홀로 머무십시오. - 성 보나벤투라 -